

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6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파트너십 확대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Expansion of Its Partnership with ASEAN

강민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일본의 대외 전략 인식에 중층적인 위협을 제기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자국중심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전략을 뒷받침하거나 이에 추종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일본의 안보와 국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위협 인식은 전후 일본 외교의 특징인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행태에 대한 재검토를 촉진하였으며, 일본이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기구 및 각종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외교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국제 규칙 형성과 재편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제도적, 규범적 차원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이하 FOIP)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체제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FOIP을 통해 이념적·실천적 외교 측면에서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하며 국제 체제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대상이 바로 아세안이며, 일본은 ODA와 OSA로 대표되는 두 축을 중심으로 대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는 CPTPP 중시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 및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기지 이동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였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세안 및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규범 제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FOIP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외교는 정치력과 군사력의 영역으로 이해되어왔는데, 헌법 제9조에 따라 군사력 행사를 포기한 일본에게 있어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경제력은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경제력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세계 1위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공여국 지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23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외원조정책은 큰 틀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대외원조정책 내 군사적 지원을 공식화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政府安全保障能力強化支援,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은 FOIP이

지향하는 법치 기반, 항행의 자유와 같은 해양 규범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되었다. 2023년 4월 5일, 일본은 ODA와 별도로 군등에 대한 자재, 장비 제공 및 인프라 정비 등을 동지국에 제공하는 새로운 무상자금 협력 체계인 OS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비군사적 개발 협력에 중점을 둔 ODA를 넘어선 안보 연계 원조 체계의 출현을 의미했다. 이번 OSA의 도입은 1970년대 말 등장했던 '전략원조(Strategic Aid)'의 제도적 양성화라 할 수 있다. OSA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관심은 예산 증가에서도 뚜렷히 나타나는데, 2023년 약 1,380만 달러에서 2024년 약 3,460만 달러, 4월 1일에 시작된 2025 회계연도에는 약 5,6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배경에는 OSA와 ODA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FOIP의 추진을 한층 더 원활히 진행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에게 우호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강민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2026년 2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 체제의 변동과 중견국의 대응: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국제 체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일본 외교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일시: 2026년 6월 9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4호